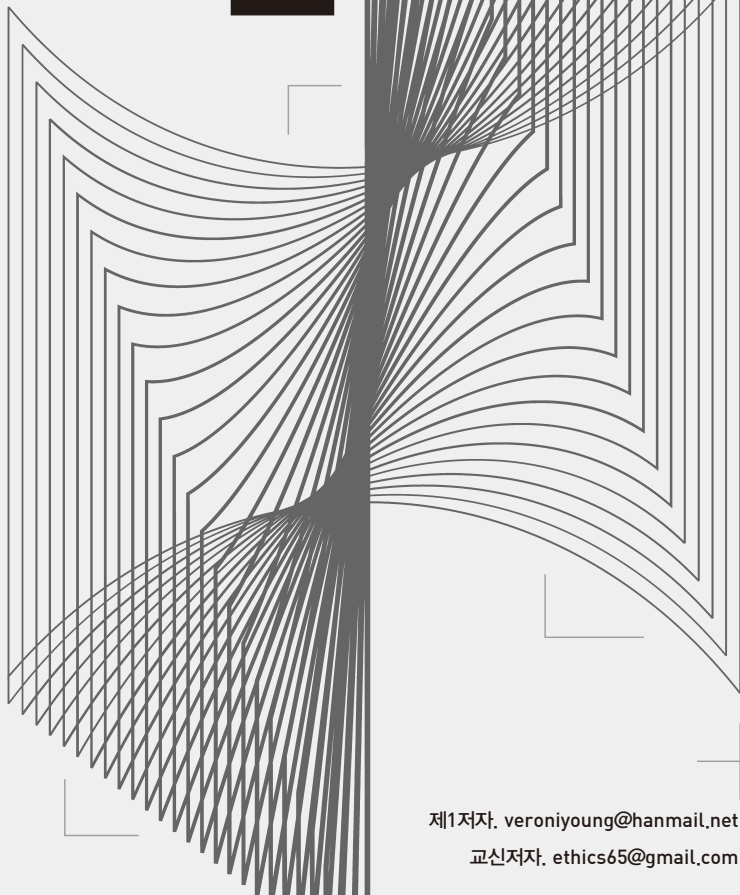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7호
(2025/겨울)



제1저자. veroniyoung@hanmail.net

교신저자. ethics65@gmail.com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이해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존재론적 인격주의 비교 연구

하영숙(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연구소 · 생명윤리학 · 연구원)

구영모(아산병원 · 생명윤리학 · 명예교수)

<https://doi.org/10.21738/JHS.2025.12.57.99>

I. 서론

■ 21세기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 물음을 새로운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다.* ** 이종관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부재”라고 지적한다.*** 2022년 11월 공개된 ChatGPT는 출시 두 달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확산된 디지털 기술로 기록되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창작, 코딩, 철학적 대화 등 전통적으로

* 이 글은 가톨릭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 연구소 반석 기금(2025)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 이 글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제25차 정기 학술 세미나(2025.11.25.) 발표문(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이해: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존재론적 인격주의의 비교와 통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이종관,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운명」, 객진상·박찬호·한민택 편, 『4차 산업혁명과 신학의 만남』,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9, 162~164쪽.

**** Greg Brockman et al., “ChatGPT: Optimizing Language Models for Dialogue”, OpenAI Blog, November 30, 2022, <https://openai.com/blog/chatgpt> (검색일: 2025년 10월 15일); Krystal Hu, “ChatGPT sets record for fastest-growing user base”, Reuters, February 2, 2023. ChatGPT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박태웅, 『AI 강의 2025』(서울: 한빛비즈, 2025), 75~112쪽.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의성과 사유의 차원에까지 진입했다.* 박태웅은 인공지능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스며드는 기술”이라고 정의하며, 작동 원리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로서 인간의 사고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심각한 윤리적 위험과 실존적 위기를 동반한다. 2023년 벨기에에서 한 남성이 인공지능 챗봇과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화 끝에 자살했고, 2024년 미국에서도 14세 소년이 유사한 비극을 겪었다.*** CRISPR-Cas9으로 대표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간 배아의 유전 정보를 수정할 가능성을 열었다.**** 한스 요나스가 경고했듯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며, 생명공학 기술의 오용과 오류는 당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의 존재 조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과 더불어 인간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확장시키는 융합(NBIC Convergence)들도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생각만으로 기계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뉴럴링크는 2024년에 첫 인간 임상시험

* 이정모 외 10인 지음, 『미라를 퀘스천: 11인의 전문가, 우리의 미래를 구할 질문에 답하다』, 공민희 옮김, 이야기장수, 2025, 136~149쪽.

** 박태웅, 같은 책, 9쪽, 107쪽.

*** “AI 챗봇과 대화하다 자살한 벨기에 남성”, 『한겨레』, 2023.3.31; “AI 챗봇과 대화 후 자살한 미국 10대”, 『연합뉴스』, 2024.10.24.

**** 전방욱,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의한 인간 생식세포 유전체 편집의 윤리적 프레이밍, 『생명, 윤리와 정책』 2-2 (2018), 25~46쪽.

***** 한스 요나스, 『기술 의학 윤리』, 이유백 옮김, 숲, 2005.

***** 닉 보스트롬, 『슈퍼인텔리전스: 경로, 위험, 전략』, 조성진 옮김, 까치, 2020, 93~94쪽.

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 창의성의 본질을 되묻는 철학적 문제를 제기한다. 결국 기술문명이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인류는 근본적인 실존적 질문에 직면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여전히 존엄한 존재인가? 기술적 완전성은 인간적 완성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단순히 기술의 규범적·윤리적 차원을 넘어,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을 근본적으로 다시 사유해야 하는 철학적 요청으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곧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하기 때문이다.**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는 인공지능이 인간 존재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이진현은 인간이 기술적 진보 속에서 점차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불안을 신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이해를 둘러싼 세 사상, 즉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존재론적 인격주의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이해를 둘러싼 철학적 논의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어 왔다. 트랜스휴머니즘 연구는 닉 보스

* Ashlee Vance, “Neuralink’s First Human Patient Able to Control Mouse Through Thinking”, Bloomberg, March 20, 2024; Neuralink, “First Human Implant”, Company Press Release, January 29, 2024, <https://neuralink.com>; “머스크 뉴럴링크, 첫 인간 뇌 칩 이식 성공”, 『한겨레』, 2024.1.30.

**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인공지능의 시대, 인생의 의미』, 박종대 옮김, 열린책들, 2022; 이진현, 「우리는 ‘곧’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인간 실존의 문제 고찰」, 『신학과 철학』 42 (2022), 81~112쪽.

트롬이 “노화, 질병, 고통,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철학적·기술적 운동”으로 정의하며 인간 본질의 변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신상규가 트랜스휴머니즘의 생명정치적 함의를 분석했고,** 이종관은 트랜스휴머니즘이 인간을 기능적으로 다루고 효율성으로 환원하는 위험을 비판했다.*** 이상현은 칸트의 도덕철학의 관점에서 약물을 통한 도덕 향상의 위배 여부를 논의하였다.**** 포스트휴머니즘 연구는 인간중심주의 비판과 관계적 존재론 구축에 주력해왔다. 로지 브라이도티가 유목적 주체 개념을 통해 인간을 관계망 속의 생성적 존재로 재정의했으며,***** 야나 로는 기술적·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구분했다.***** 국내에서는 김동윤·배상준이 포스트휴먼을 “인간의 생물학적 차원의 제약과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로 정의하며 사이버네틱스적 사고에 주목했고,***** 이원봉은 포스트휴머니즘의 접미어 휴머니즘의 의미에 대한 연구에서 현재의 인간의 종말을 추구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이라면 이러한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으로 불릴 자격이

* Bostrom, Nick, “Why I Want to Be a Posthuman When I Grow Up”, in Bert Gordijn and Ruth Chadwick eds., *Medical Enhancement and Posthumanity*, Berlin: Springer, 2008, pp.107~136.

** 신상규,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 향상의 생명정치학」, 『일본비평』 17 (2017), 67~90쪽.

*** 이종관, 『포스트휴먼이 온다: 인간 이후의 인간학』, 사월의 책, 2017.

**** 이상현, 「칸트 도덕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포스트휴먼」, 『서강인문논총』, 32(2011), 125~155쪽.

***** Braidotti, Rosi, *The Posthuman*, Cambridge: Polity Press, 2013.

***** 야나 로,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조창오 옮김,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김동윤·배상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발달에 따른 트랜스/포스트휴머니즘에 관한 학제적 연구」, 『방송공학회는문지』 24-3 (2019), 411~419쪽.

없다고 지적한다.* 신상규는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머니즘의 개념적 구분을 시도했다.** 그러나 포스트휴머니즘 연구는 비인간 주체의 지위와 윤리적 책임의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했으며, 실천적 지침 제시에 한계를 보였다.*** 셋째, 존재론적 인격주의 연구는 엘리오 스그레차가 과학적 사실, 인간학적 원리, 윤리적 규범의 통합을 강조하는 삼각형 방법론을 제시했으며,**** 진교훈은 교육 분야에서 인격주의 생명윤리학을 연구했다.***** 2025년 교황청은『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을 발표했으나, 일리아 델리오수녀는 이를 “너무 늦고 부족하다(Too Little, Too Late)”고 비판했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다음의 연구 공백이 확인된다. 첫째, 세 사상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이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통합적 접근을 모색한 연구는 부족하다. 둘째, 추상적 이론 논의에 치중하여 구체적 사례를 통한 실증적 분석이 미흡하다. 셋째, 스그레차의 삼각형 방법론을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이해에 적용한 연구가 거의 없다.

- * 이원봉,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이 될 수 있는가?: 포스트휴머니즘 논쟁을 통해 본 휴머니즘의 의미와 한계」, 『인간연구』, 제37호(2018/가을, 인간학연구소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특별호), 57~77쪽.
- ** 신상규,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머니즘, 그리고 삶의 재발명”, HORIZON (KIAS), 2020.1.23. <https://horizon.kias.re.kr/wp-content/uploads/2020/01/2001.pdf> (검색일: 2025.11.13).
- *** 포스트휴머니즘을 논의할 때 흔히 발생하는 개념적 혼란은 이를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변형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글로는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살림, 2005; 장-프랑수아 리오타르, 『포스트모던의 조건: 지식에 관한 보고서』, 유정완·이성민 옮김, 민음사, 1992를 참고할 수 있다.
- **** 엘리오 스그레차, 『생명윤리의 이해 I』, 정재우 옮김(서울: 가톨릭출판사, 2016); 엘리오 스그레차, 『생명윤리의 이해 II』, 정재우 옮김(서울: 가톨릭출판사, 2016)
- ***** 진교훈 외, 『인격: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격의 의미』(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 Delio, Ilia, “Too Little, Too Late: The Church’s Inadequate Response to AI and Human Evolution”, *National Catholic Reporter*, August 12, 2025.

이상의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과 생명기술의 발전이 인간 존재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지만, 인간을 기술적 주체, 관계적 존재, 윤리적 인격 중 어느 하나로만 이해할 경우 새로운 윤리적 갈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인간 향상과 기술 선택의 문제는 단일한 자유 개념이나 규범 원리로는 판단되기 어려우며, 자율성 그 자체가 긴장과 충돌의 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자율성을 단일한 권리 개념이 아니라 형태학적 자유, 관계적 자율성, 책임적 자유가 교차하는 다층적 구조로 재구성하고, 과학적 사실·인간학적 원리·윤리적 규범을 통합하는 분석 틀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이해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에 제기되는 인간 이해의 변화라는 문제의식 아래,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존재론적 인격주의의 인간 이해와 인간상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각 사상이 전제하는 자율성 개념과 그 철학적·윤리적 한계를 검토한다. 둘째, 세 사상의 공통점을 토대로 자율성을 단순한 공통 주제가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통합의 규범적 기준으로 설정하고, 엘리오 스그레차의 삼각형 방법론 — 과학적 사실, 인간학적 원리, 윤리적 규범 — 을 자율성 간 긴장을 판별하는 구조적 분석 틀로 활용함으로써 세 사상의 통합 가능성을 탐색한다. 셋째, 2018년 허젠쿠이 유전자 편집 아기 사건을 인공지능 시대 인간 이해의 한계와 자율성 간 충돌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로 설정하고 삼각형 방법론

을 적용함으로써, 통합적 접근이 단일 이론 틀에 비해 어떠한 윤리적·정책적 차이를 도출하는지를 검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장에서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철학적 기반을 고찰하고,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인간 이해와 인간상, 그 한계를 분석한다. II장에서는 포스트휴머니즘을 기술적·비판적 흐름으로 구분하여, 인간을 관계적·생성적 존재로 재정의하는 인간 이해의 가능성과 한계를 조명한다. 제III장에서는 존재론적 인격주의의 인간 이해를 2025년 교황청 문헌『옛것과 새것』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일리아 텔리오의 내적 비판을 검토함으로써 기술 시대에 인간 존엄을 어떻게 사유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제IV장에서는 세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를 종합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이해를 재구성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율성의 다층적 구조와 스그레차의 삼각형 방법론을 통합적 판단 틀로 제시하고, 이를 허젠쿠이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자율성, 책임, 제도적 규제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본 논문이 제안하는 통합적 인간 이해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II. 본론

1.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의 인간 이해

트랜스휴머니즘은 1957년 줄리언 헉슬리가 “인류는 원한다면 스스로를 초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처음 사용했다.* 1998년 닉 보스트롬과 막스 모어에 의해 철학적으로 체계화되었다. 「트랜스휴머니스트 선언」은 “응용이성을 통하여 노화를 제거하고 인간의 능력을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바람직함을 긍정하는 지적·문화적 운동”으로 정의했다.** 2002년 미국과학재단의 보고서는 NBIC 융합을 통해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트랜스휴머니즘이 정책적·제도적 정당성을 획득했음을 의미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의 철학적 기반은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된다. 첫째, 공리주의적 행복윤리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은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를 생물학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노화와 죽음을 제거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간주한다. 인간 향상은 윤리적 의무로 해

* 이종관, 『포스트휴먼이 온다』, 사월의 책, 2017, 28쪽; Julian Huxley, *New Bottles for New Wine* (London: Chatto & Windus, 1957), 17.

** Nick Bostrom, “A History of Transhumanist Thought”, *Journal of Evolution and Technology* 14, no. 1 (2005), pp.1~25, <https://jetpress.org/volume14/bostrom.html>(검색일: 2025.11.13.)

*** Mihail C. Roco and William S. Bainbridge,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https://www.nsf.gov/crssprgm/nano/reports/program_converging_tech_sch050127.pdf (검색일: 2025.10.01)

**** 이종관, 같은 책, 30쪽.

석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생물학적 완전성의 추구로 전환시킨다.* 둘째, 실천적 낙관주의이다.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경 “기술적 특이점”이 도래하며, 인간은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한 포스트휴먼으로 진화한다고 예측했다.** 셋째, 유물론적 환원주의와 기능주의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정신을 정보 패턴으로 이해하며,*** 커즈와일은 뇌의 신경 연결을 디지털 기질로 전환하여 의식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본질은 업로드 가능한 정보이며, 마음 업로딩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진다.

1) 트랜스휴머니즘의 인간 이해와 인간상

트랜스휴머니즘의 인간 이해에서 핵심 개념은 인간 향상(Human Enhancement)이다. 인간 향상이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건강수명 연장, 노화 제거, 지적·정서적·신체적·심리적 능력의 개선을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철학자 야니나 로(Janina Loh)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인간 이해를 전통적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첫째, 인간상과 교육의 차원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을 미완성의 존재로 본다. 인간은 교육과 수양이 아니라 기술적 향상을 통해 완성된다. 인간의

* 야니나 로, 같은 책, 42~43쪽; 신상규,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 향상의 생명정치학」, 『일본비평』 17 (2017), 76~77쪽.

** 야니나 로, 같은 책, 80~81쪽; 레이 커즈와일, 같은 책, 511~544쪽.

*** 이종관, 같은 책, 39~40쪽.

**** 레이 커즈와일, 『같은 책』 195~276쪽, 521~530쪽.

***** 신상규, 같은 글, 73쪽.

***** 트랜스휴머니즘의 인간 이해에 대한 본 절의 내용은 야니나 로, 같은 책, 26~43쪽에 기초하고 있다.

불완전성은 도덕적 성숙이 아니라 생물학적 개조를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과 공동체의 차원에서 인본주의의 자율성을 생물학적 자기결정권으로 확장한다. 유전자 편집, 신체 개조, 인공지능 결합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인간 향상은 공동체적 과제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이다. 셋째, 육체와 정신의 차원에서 의식을 물질적 뇌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적 패턴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정신의 디지털 전환과 의식의 이전 가능성을 상정한다.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업로드 가능한 정보이다. 넷째, 해방의 차원에서 인간은 무지나 미신이 아니라 생물학적 조건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한다.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새로운 목표다. 이상의 네 차원을 통해 볼 때,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을 도덕적 완성의 존재가 아닌 자기 재설계의 주체(subject of self-redesign)로 이해한다. 인간 존엄의 근거는 도덕적 성숙이나 존재론적 차원이 아니라 향상 가능성(enhanceability)에 있다.

트랜스휴머니즘이 지향하는 인간상은 “자연으로서의 인간이 지닌 불완전한 부분을 인공장기나 인공지능으로 대체함으로써 완전성을 향해 개조된 새로운 존재, 즉 포스트휴먼이다.”* 로 의하면, 이 인간상을 구성하는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 연장과 불멸이다.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생명을 무한히 지속시킨다. 노화와 죽음은 기술적으로 관리 가능하다. 둘째, 냉동보존이다. 생명을 시간적으로 정지시켜 미래 과학기술로 재활성화한다. 셋째, 인간 향상이다. 유전공학·나노기술·인공지능

* 이종관, 같은 책, 38쪽 참조.

** 이에 대해 로의 같은 책, 53~75쪽에 상세히 나와있다.

능의 결합으로 인간의 능력을 증대시킨다. 넷째, 트랜스휴먼과 사이보그다. 인간과 기계의 융합을 통해 기능적 한계를 넘어선다. 다섯째, 가상성과 우주 확장이다. 인간의 의식은 물질적 신체와 지구적 제약을 넘어 비물질적·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이 다섯 주제는 모두 인간 존재를 기술적 개선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의 이상적 인간은 자연적 조건에 구속되지 않고,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해 스스로를 재정의하는 자기초월적 주체이다. 트랜스휴머니즘 내부에서 이 인간상은 두 방향으로 분화된다. 자유주의적 트랜스휴머니즘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인지 향상, 수명 연장, 유전자 편집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반면 기술진보주의는 기술 발전이 사회적 평등과 정의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트랜스휴머니즘이 기술을 통한 개인의 자유의 극대화를 지향한다면, 기술진보주의는 기술을 통한 사회적 평등과 공동선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두 사상은 모두 인간 향상 기술에 대한 낙관적 신념을 공유하지만, 인간 향상을 개인의 권리로 볼 것인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볼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른 길을 걷는다. 따라서 트랜스휴머니즘의 인간상은 단순히 생물학적 초월의 비전이 아니라, 기술을 매개로 한 자유와 평등의 긴장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는 인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신상규는 자유주의적 트랜스휴머니즘과 기술진보주의의 생명정치적 견해를 80쪽 표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신상규, 같은 글, 67~90쪽.

2)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비판

첫째, 인간 본질의 정의 부재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질적 정의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인간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기능적 명제만을 강조한다.* 향상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 모든 기술적 개입은 그 자체로 정당화되며, 이는 기술적 결정론으로 귀결된다.** 둘째, 자율성의 역설이다. 인간 향상 기술이 인간의 자유를 확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결정과 선택이 기술 시스템에 종속되는 역설적 결과를 낳는다.*** 결국 인간은 능동적 주체에서 기술적 과정의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며, 기술은 인간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규정하는 조건이 된다.**** 셋째, 도덕적 성숙의 간과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 향상을 생물학적 능력의 확장으로만 이해함으로써, 도덕적 성숙과 인격적 완성의 차원을 간과한다.***** 넷째, 인간 본성과 정치적 평등의 해체 위험이다. 프랜시스 후쿠아마는 인간 본성을 “팩터 엑스(factor X)”라 부르며, 그것이 모든 인간의 권리와 존엄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샌델은 인

* 야나 로, 같은 책, 92~96쪽.

** 신상규, 같은 글, 73쪽.

*** 이종관, 같은 책, 35~38쪽.

**** 야나 로, 같은 책, 96~100쪽.

***** 마이클 샌델, 『완벽에 대한 반론: 유전공학 시대의 인간의 한계』, 안규남 옮김, 와이즈베리, 2014, 67~83쪽.

***** Francis Fukuyama, *Our Posthuman Future: Consequences of the Biotechnology Revoluti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2).

간의 겸손, 책임감, 유대감을 변형시킨다고 주장하며,* 위르겐 하버마스는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람의 존재 형태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다섯째, 우생학적 인간관의 위험이다. 이종관은 트랜스휴머니즘이 인간을 기능적 효율성과 정보 처리 능력의 총합으로 이해하며, 생명과 인격을 동일한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다룬다고 비판한다. 이는 인간의 내재적 존엄을 성취나 성능으로 평가하게 만들며, 결국 우생학적 인간관(eugenics view of humanity)으로 귀결될 위험을 내포한다.*** 이와 같이 트랜스휴머니즘의 근본적 한계는 인간의 기술적 향상을 곧 존재론적 향상으로 오인한다는 데 있다. 인간은 기술적 조작의 결과물이 아니라, 의미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형성해가는 존재이다. 생물학적 능력의 증대가 자동적으로 인간다움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간 향상의 진정한 방향은 생물학적 개조나 정보적 초월이 아니라, 도덕적 성숙과 관계적 책임성의 회복에 있다.**** 인간의 향상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이며, 진정한 초월은 기술이 제공하는 외적 확장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깊이 — 양심, 사랑, 책임의 차원 — 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을 통해 실현된다.

* 마이클 샌델, 같은 책, 67~83쪽.

** Jürgen Habermas, *The Future of Human Nature* (Cambridge: Polity Press, 2003); 김동윤 · 배상준, 같은 글, 414~415쪽.

*** 장희권, 「21세기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인간 존재 방식: 이성적 계몽에서 유전자를 통한 사육으로?」, 『독일문화』 96 (2005), 174~195쪽; 이종관, 같은 책, 38~60쪽.

**** 교황청 신앙교리부 · 교황청 문화교육부,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 인공지능과 인간 지성의 관계에 관한 공지』(Vatican City: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25), 35항.

2.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의 인간 이해

1)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 이해와 인간상

포스트휴머니즘은 20세기 후반 이후 첨단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철학적 사조이다. 인공지능,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생명공학, 정보기술, 나노기술 등 NBIC 융합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실질적으로 확장시키며, 인간과 기계,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 변화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 질문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도록 이끌었으며, 인간중심주의와 근대적 인본주의의 형이상학적 전제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게 했다. 포스트휴먼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이상현은 포스트휴먼을 “기술적 수단을 통해 향상된 인간으로 현재의 인간종과 뚜렷하게 구별될 만큼 현저하게 진보된 새로운 인간종”이라고 정의한다.** 김동윤·배상준은 “인간의 생물학적 차원의 제약과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로서, 사이버네틱스적 사고에 뿌리를 둔 개념”으로 해석한다.*** 신상규는 포스트휴먼을 “공상과학, 철학, 문학이론, 사회이론 등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인간존재의 모습”으로 정의한다.**** 이종관은 포스트휴먼을 “이미 인간과 기술이 공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포스트휴먼 시대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문사회 학제간 연구』, 정책연구 14(2014).

** 이상현, 「포스트휴먼과 행복」, 『철학논집』 51 (2017), 132쪽.

*** 김동윤·배상준, 같은 글, 411~419쪽.

**** 신상규,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머니즘, 그리고 삶의 재발명」, 『HORIZON (KIAS)』, 2020.1.23.1쪽.

화하는 현실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존재론적 변화의 징후”로 이해한다.* 중요한 것은 포스트휴머니즘이 단순히 기술 발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근대 이후 인간 이해의 총체적 재구성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을 자연과 분리된 주체로 보던 관점을 넘어, 생명적·물질적·기술적 네트워크 속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론적 연속성(ontological continuity)의 사유로 나아간다.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윤리적·존재론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인간과 비인간, 생명과 비생명, 물질과 정보가 얹혀 있는 세계 속에서 ‘인간다움’의 의미를 다시 써 내려가는 사상적 시도로 이해된다.**

1) 기술적·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 이해와 인간상

포스트휴머니즘은 크게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과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으로 구분된다.***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은 과학 기술의 진보를 통해 인간을 초월하려는 인본주의의 연장선에 있다. 인간을 “향상되어야 할 프로젝트”로 이해하며, 완전성과 효율성, 최적화를 지향한다. 이는 데카르트적 이성 중심주의의 산물이다. 학습을 인지적 효율과 정보처리 능력의 극대화로 이해하고, 급진적 개인주의를 드러낸다. 인간 향상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정당화되며, 자기 신체에 대한 절대적 자기결정권이 강조

* 이종관, 같은 책, 38쪽.

** 야니나 로, 같은 책, 109~114쪽, 152~153쪽.

*** 본 절의 내용 대부분을 야니나 로, 같은 책, 25~39쪽에서 참고하였다.

된다. 육체와 정신의 차원에서 데카르트적 이원론을 극단화하여, 인간을 정보로 환원하고 신체를 교체 가능한 하드웨어로 본다. 마음 업로딩, 디지털 불멸 등은 이러한 정보 일원론(informational monism)의 극단적 형태이다. 인간이 질병, 노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진정한 자유로 본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주의 자체를 반성하고 넘어서는 탈인본주의적 전환을 지향한다. 인간을 관계적·생태적 존재로 이해한다. 인간은 고립된 주체가 아니라 타자, 동물, 환경, 기술과 얽힌 상호생성적 존재다.* 교육을 공존의 감수성을 기르는 실천으로 보며, 관계적 존재론의 입장을 취한다.** 개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얽힌 관계망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개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얽힌 관계망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자율성은 고립된 개인의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타자와의 상호의존 속에서 실현되는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육체와 정신의 통합, 즉 전체론적 인간 이해를 회복하려 한다. 인간은 물질과 정신, 감각과 사유가 분리되지 않은 존재이며, 신체적

*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 인간·비인간 간의 존재론적 대칭성과 상호생성(co-constitution)을 강조하는 반면, 『찬미받으소서』의 통합생태론은 모든 존재의 상호연결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을 윤리적 판단과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주체로 위치시킨다. 즉 통합생태론은 관계성을 인간 주체의 해체로 귀결시키지 않고, 오히려 책임의 심화를 요청하는 인간 이해로 전개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2항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특별한 책임을 지닌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존재론적 평준화로 나아가는 일부 포스트휴머니즘적 경향과 구별되는 인간 이해를 제시한다.

** 포스트휴머니즘이 교육을 인간·비인간·기술 간 공존 감수성을 기르는 실천으로 이해한다면, 『찬미받으소서』의 통합생태론은 교육을 생태적 화합과 윤리적 책임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규정한다. 통합생태론에서 교육은 단순한 감수성 훈련을 넘어, 타자와 미래 세대에 응답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를 형성하는 규범적 실천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 209-215항. 교황은 생태 교육을 “책임 있는 삶의 양식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규정하며, 환경 감수성과 윤리적 판단, 공동선에 대한 책임을 통합적으로 길러야 함을 강조한다.

경험은 인간 존재의 필수적 기반이다. 인간의 해방은 육체의 초월이 아니라 육체적 존재로서의 수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본주의적 인간 이해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한다.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이 인본주의의 “완성된 버전”이라면,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인본주의의 “자기극복”을 모색한다. 전자가 인간의 초월을 약속한다면, 후자는 인간의 재위치화를 요청한다. 전자는 인간을 기술적 진화의 주체로 이해하지만, 후자는 인간을 생명과 비생명, 자연과 인공, 인간과 비인간의 얽힘 속에서 새롭게 정의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이 제시하는 인간상은 세 가지 차원에서 구분된다.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이 바라는 인간상은 초월적 인간상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물학적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여 완전성에 도달하려는 존재로 이해된다.* 인간이 주어진 자연적 조건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설계하고 진화시키는 자기 창조적 주체임을 강조한다.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에서 묘사하듯, 기술적 사유의 최종 단계에서 인간은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창조자가 된다.** 인간은 창조자의 역할을 맡아 진화의 방향을 설계하며, 더 나은 지능과 감정 제어 능력 그리고 생물학적 불멸을 향해 나아간다. 이때 인간의 이상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지속적 향상이다.

인간을 정보적 존재로 재정의한다. 마음 업로딩, 특이점, 인공지능 초지능은 모두 이러한 정보론적 인간관의 표현이다. 인간의

* Nick Bostrom, “Why I Want to Be a Posthuman When I Grow Up”, in *Medical Enhancement and Posthumanity*, ed. Bert Gordijn and Ruth Chadwick (Berlin: Springer, 2008), pp.107~136.

**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 김명주 옮김, 김영사, 2017.

의식은 디지털화될 수 있으며, 육체는 교체 가능한 하드웨어가 되고, 정신은 업그레이드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된다. 이러한 세계관의 윤리적 기반은 형태학적 자유(morphological freedom)이다.* 인간은 주어진 자연적 조건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존재, 즉 자기 진화의 주체로 간주된다.

결국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이 그려내는 인간상은 불멸에 대한 의지, 자기 설계의 자유, 완전성의 실현을 추구하며, 신체적 취약성과 감정적 불안정성을 결합으로 간주한다. 기술은 인간을 ‘수정 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들며, 향상은 곧 인간성의 완성으로 이해된다.

이와는 달리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초월적 인간상의 위험을 통찰하고 관계적 인간상을 추구한다. 로지 브라이도티는 『더 포스트휴먼』에서 인간중심주의의 종말을 선언하며, 기술적 향상의 서사가 오히려 인간의 다양성과 관계성을 소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간을 정보로 환원하거나, 완전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태도는 근대 인본주의가 전제한 “이성적, 백인, 남성, 서구적 인간”이라는 특권적 모델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 브라이도티가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은 초월적 주체가 아니라 “유목적 주체”(nomadic subject)이다. 이 주체는 고정된 본질을 갖지 않으며,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동한다. 인간은 자연, 동물, 기계, 인공물과의 얽힘 속에서 존재하며, 그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 바라는 인간은 완전함

* 아니나 로, 같은 책, 116~140쪽.

** Rosi Braidotti, *The Posthuman* (Cambridge: Polity Press, 2013), pp.1~54.

을 꿈꾸는 초월적 인간이 아니라, 유한성과 관계를 인식하는 성찰적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은 불멸을 추구하기보다 유한성을 수용하고, 지배와 제어보다 공존과 돌봄의 윤리를 선택한다.

신상규는 “기술적 향상이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과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인간은 향상보다 관계, 효율보다 책임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을 기술적 존재가 아니라 윤리적 관계의 중심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지향하는 인간상이 다르지만 기술적·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상은 긴장의 인간상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초월과 성찰, 향상과 관계, 자유와 책임의 긴장 속에서 통합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이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한다면,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그 가능성이 인간성을 해체하지 않도록 윤리적 경계를 설정한다. 전자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을, 후자가 함께 살아가는 인간을 이상으로 제시한다.

2) 기술적·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한계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거대한 철학적 실험이지만, 그 내면에는 여러 철학적·윤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의 한계를 살펴보겠다.

* 신상규,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 향상의 생명정치학』, 67~90쪽.

** 이 절의 많은 내용은 아니나 로, 같은 책, 141~149, 203~206쪽을 기초로 기술된 것이다; 박진상·박찬호·한민택 편저, 『4차 산업혁명과 신학의 만남』(수원: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9), 160쪽.

첫째, 육체의 부정과 체현성(embodiment)의 상실이다.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을 정보 패턴으로 환원하며, 육체를 단지 정신을 담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하드웨어로 취급한다. 그러나 육체는 단순한 생물학적 기계가 아니라, 감각과 관계를 통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이며, 인간 주체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마음 업로딩이나 사이보그화를 통한 ‘불멸’의 약속은, 실제로는 인간 경험의 본질적 차원들 — 고통, 취약성, 타자와의 상호 의존성 — 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기술적 초월은 결국 인간적 실재를 희생시킨 대가로 얻은 허상의 자유에 불과하다. 둘째, 정신의 통제와 정보화의 역설이다. 레이 커즈와일은 인간 뇌의 모든 신경 연결을 스캔하여 디지털 기질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식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로서의 마음”이라는 개념은 인간 정신의 내면적 깊이, 기억의 주관성, 감정의 실존적 의미를 제거한다. 인간의 의식은 단순한 정보 패턴이 아니라, 시간과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경험의 역사이다. 인간 정신을 데이터로 환원하고 통제 가능한 코드로 다루는 순간, 자유와 자율성은 기술 시스템의 계산 논리에 종속된다. 셋째, 인격 동일성과 윤리적 주체성의 붕괴이다. 정보로 복제된 존재가 과연 동일한 “나”로 간주될 수 있는가? 인격은 단순한 기억의 축적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시간 속에서의 경험, 윤리적 선택의 결과로 형성되는 서사적 구조(narrative structure)이다.** 복제된 정보체는 동일한 기억을 가질 수 있으나, 동일한 윤리적 주체

* 레이 커즈와일, 같은 책, 195~276쪽, 521~530쪽.

** 야니나 로, 같은 책, 203~206쪽.

는 될 수 없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근본적 물음 앞에서, 테이터적 인간은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넷째, 기술적 불평등의 심화이다. 유전자 편집,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수명 연장 기술 등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결국 경제적 엘리트만이 접근 가능한 특권이 될 것이다.* ‘강화된 인간’과 ‘자연적 인간’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존재론적 불평등으로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기술적 초월을 통한 해방의 약속은, 실제로는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며, 대다수를 새로운 형태의 종속으로 내몰 수 있다. 다섯째, 누가 ‘개선’을 정의하는가의 문제이다.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 향상을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로 제시하지만, 실제로 어떤 능력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특정한 사회적·경제적 권력 구조 안에서 결정된다.** 예컨대 생산성, 인지 능력, 경쟁력 같은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강화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누가 업그레이드를 설계하고, 누구에게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은 새로운 형태의 생명정치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의 해체와 관계적 윤리의 복원을 강조하며,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의 환원주의적 오류를 비판한다. 그러나 그 사유 역시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내포한다. 첫째, 인본주의와 인간중심주의의 개념적 혼동이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종종 인본주의 전체를 인간중심적 사고와 동일시하며 비판하지만,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인간중

* 이채리, “포스트휴먼의 공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한철학』 71 (2013): 171~179쪽.

** 야니나 로, 같은 책, 91~103쪽.

심주의는 인간을 세계의 척도로 삼아 비인간적 존재들을 도구화 하거나 열등하게 간주하는 태도이다. 반면 인본주의는 인간이 도덕적 판단과 가치 창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규범적 전통을 포함한다. 둘째, 이론적 위치와 핵심 개념의 모호성이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무는 상호적 학제성을 강조하면서, 철학·문학·사회과학·기술학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비판의 지형을 형성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개방성이 오히려 그 이론적 중심을 불분명하게 만든다.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이 비교적 명확한 목표(인간 향상과 초월)를 제시하는 데 비해,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자신이 대체하려는 철학적 기반 — 예컨대 인간론, 윤리론, 주체 개념 —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새로운 개념들(예: 유목적 주체, 탈주체성, 다종적 주체성)이 풍부하게 등장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철학적 실천을 지향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셋째, 비인간 주체의 지위와 의미에 대한 불명확성이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해체하고, 인간을 다른 존재들과 동등한 관계 속에 위치시키려 한다.* 그러나 “비인간을 나와 동등한 주체로 대한다”는 명제는 철학적·윤리적 차원에서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인간은 의식, 언어, 도덕적 판단 능력 등에서 타 존재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을 가진다. 이러한 차이를 완전히 평면화할 경우, 인간의 책임과 도덕적 판단의 근거 자체가 모호해진다. 이러한 기술적,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2016년 알파고와 이

* 야니나 로, 같은 책, 91~103쪽.

세들의 대국이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알파고의 명령에 따라 바둑 돌을 두던 이자황의 존재이다.* 결국 알파고의 ‘승리’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지능에 의해 작동되고 대체되는 존재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 초월의 약속 속에 인간 상실의 그림자를 품고 있으며,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적 사유를 넘어설 윤리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지만, 여전히 기술적 현실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다. 이자황의 모습은 그러한 이중적 역설의 압축된 표상으로, 오늘날 포스트휴먼 시대의 철학이 직면한 가장 심층적 문제 — ‘기술 속 인간의 운명’ — 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존재론적 인격주의(Ontological Personalism)의 인간 이해

존재론적 인격주의는 20세기 초 유럽의 인간 소외와 전체주의의 위기 속에서 태동했다. 인격주의는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며, 인간을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관계적 인격”으로 재정의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율적 실체이지만 동시에 타자와 공동체, 궁극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완성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격주의 사상은 국가와 전통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 곽진상 · 박찬호 · 한민택 편저, 『4차 산업혁명과 신학의 만남』, 161~162쪽. 이자황의 사례는 인간이 기술의 연장선으로 전락하고, 스스로 사고하기보다 기술의 판단을 수행하는 ‘인간 아바타’가 된 상징적 장면이다.

** 진교훈 외, 『인격: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격의 의미』(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홍석영, “현대의 철학적 인간학: 인격주의를 중심으로”, 『가톨릭 신학과 사상』 62 (2008): 85~114쪽.

보인다.* 존재론적 인격주의는 전통적 인격주의가 주로 윤리적·사회적 차원에서 인격의 가치를 강조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격을 존재의 근본 범주로 보는 형이상학적 관점”을 제시했다. 인간은 단지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인격적 구조를 지닌 실재이다. 인간의 인격은 사회적 지위나 기능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함 그 자체로부터 존엄성을 지닌다. 인격 개념의 철학적 발전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를 지닌다. 존재론적 인격주의는 인격(Person)을 존재의 근본 범주로 보는 철학적 관점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인격주의는 20세기 중반 이후 교황청 문헌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사목헌장』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어 자유와 책임을 지닌 인격으로 부름받았다”고 천명하면서, 인격주의적 인간 이해를 교회 인간학의 중심으로 수용했다. 이 전통은 21세기에 이르러, 교황청 문헌 『옛 것과 새 것(Antiqua et Nova)』에까지 이어지며,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시대 속에서 존재론적 인격주의는 새로운 도전과 마주하게 된다.

* 인격주의의 계보에 대해서는 진교훈 외의 같은 책을 참조하면 상세하게 알 수 있다. 특히 폴란드의 카롤 보이티와(Karol Wojtyła, 후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행위하는 인격(acting person) 개념을 통해 가톨릭 인격주의를 정립했다.

** 인격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연극 배우가 극중에 사용했던 가면(προσωπον, prosopon) 내지 역할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엘리오 스그레차, 『생명윤리의 이해 1』, 정재우 옮김(서울: 가톨릭출판사, 2016), 132~137쪽; 강두호, 『자연법 사회윤리』(서울: 인간사랑, 2009), 371~377쪽. 인격주의는 각각의 의미와 강조점에 따라 관계적(대화적) 인격주의, 해석학적 인격주의(주관의 의식 강조), 존재론적 인격주의(몸과 영혼 단일체에 내재한 본질과 실존) 노선으로 나뉜다.

1) 존재론적 인격주의의 인간 이해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 인공지능과 인간 지성의 관계에 관한 공지』문헌은* 인공지능을 인류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인식론적 전환점으로 규정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은 기술적 성취나 효율성의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임을 강조한다. 첫째, 인공지능의 본질 규정을 통한 인간 이해이다. 문헌은 인공지능을 인간 지성의 대체물이 아닌 “인간 지성의 산물(product of human intelligence)”이라고 규정한다(35항). 둘째, 육체와 영혼의 단일체로서의 인간이다. 문헌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된 단일체라 정의한다”(16-17항). 인간의 사고와 감정, 윤리적 판단은 모두 육체적 실존 안에서 드러난다. “지성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된 활동이며, 단순한 연산 능력이 아니다”(48항)라는 선언은, 인간의 사고가 감정과 경험, 윤리와 신앙의 통합적 작용임을 드러낸다. 따라서 인간의 지성은 육화된 사유(embodied thinking)이며, 인간의 존엄은 바로 이 통합성 안에서 드러난다. 셋째, 존재의 의미를 묻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문헌은 인간 지성을 “존재의 의미를 묻는 능력”이며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밝힌다(22항). 인간의 지성은 단순히 논리적 사고나 정보처리의 능력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을 묻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 통찰의 능력이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인식할 수 있지만, “왜?”라는 근원적 물음을 던질 수 없다. 인간만이

* 교황청 신앙교리부 · 교황청 문화교육부,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 인공지능과 인간 지성의 관계에 관한 공지』(Vatican City: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25).

자신의 존재를 되묻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진리를 사랑할 수 있다. 넷째,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인격이다. 문헌은 “인간은 타자와의 친교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성한다. 인간 지성은 대화와 협력, 연대 안에서 가장 충만하게 표현된다”고 말한다(18-19항). 따라서 존재론적 인격주의는 개인주의나 집단주의가 아닌 관계적 인격주의의 관점을 확립한다. 인간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타자를 통해 자신을 초월한다. 대화, 협력, 연대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표현이다. 다섯째, 자유와 책임이다. 문헌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이며, 자유는 선택의 폭이 아니라 책임의 깊이에서 측정된다”고 강조한다(87항, 94항). 인간의 자율성은 무제한적 선택 가능성이 아니라, 선과 진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한다. 문헌은 “기계는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만, 인간은 마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며(46항),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기술적 자동성과 명확히 구분한다. 인간은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행동할 수 있으나, 진정한 자유는 단순한 가능성의 확장이 아니라 선과 진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해방이란 기술을 배제하거나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도덕적 질서 안에 두는 윤리적 성숙의 과정이다. 여섯째, 전인적 성숙을 지향하는 교육적 존재이다. 문헌은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본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전인 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하며, “머리, 마음, 손의 통합”을 통해 인간의 지성과 감정,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한다(77-81항). 이는 존재론적 인격주의가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의

성숙 과정으로 본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배우는 존재이자, 배움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는 존재이다. 머리(지성), 마음(감정), 손(실천)의 조화는 인간이 단순한 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느끼고 사랑하며 행동하는 통합적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옛것과 새것』이 제시하는 존재론적 인격주의의 인간 이해는 기술문명 속에서도 존재의 의미를 사유하고, 관계 속에서 자유와 사랑을 실현하며, 전인적 성숙을 지향하는 인격적 주체로 정리된다. 이 문헌은 인간을 단순한 합리적 동물이나 지적 기계의 수준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인간은 진리를 향한 사유와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의 중심, 곧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으로서 창조된 존재이다(21-22항). 인간의 존엄은 능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근거하며, 이는 어떠한 기술적 발전도 대체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

다음으로 『옛것과 새것』이 제시하는 존재론적 인격주의의 인간상은 다섯 가지 차원에서 조명될 수 있다. 첫째, 의미를 사유하는 인간이다. 인간은 기술적 도구의 조작자가 아니라, 존재의 진리를 탐구하는 사유의 주체로서 살아간다.(22항)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동안,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선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원적 물음을 던진다. 둘째, 존재로 성장하는 인간이다. 인간은 완결된 실체가 아니라, 자유와 양심의 작용 속에서 자신을 빚어 가는 과정적 존재(processual being)이다.(77-81항) 트랜스휴머니즘이 생물학적 개조를 통한 완성을 추구한다면, 존재론적 인격주의는 도덕적 성숙과 인격적 완성을 지향한다. 셋째, 공동선을 향한 인간이다.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실현하는 존재이다.(18-19
 항) 인간은 ‘나’로만 완성되지 않으며, ‘너’와 ‘우리’를 통해 비로
 소 인격으로 완성된다. 대화, 협력, 연대는 단순한 사회적 기술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 표현이다. 넷째, 육화된 인간이다. 인
 간은 정신과 육체의 이원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
 된 단일체이다.(16-17항, 48항) 인간은 몸으로 사유하고, 감각을 통
 해 진리를 체험하며, 행위를 통해 영혼의 의미를 드러낸다. 고통,
 취약성, 유한성은 제거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조건이
 다. 다섯째, 책임적 인간이다. 자유는 무제한적 선택이 아니라, 책
 임의 깊이에서 측정된다. 인공지능은 확률을 계산하고 최적해를
 제시할 수 있지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양심에 따라 결단을 내리
 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존재론적 인격주의
 가 바라는 인간은 존재를 사유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관계 속에서
 책임과 자유를 실천하는 인격적 존재이다.(94항, 46항, 87항) 그는
 기술적 효율보다 인간적 성찰을, 경쟁보다 공동선을, 기능보다 의
 미를 중시한다. 이러한 인간은 곧 “antiqua et nova” — 옛것과 새
 것을 함께 품은 인간, 즉 전통의 지혜와 현대 기술의 가능성을 통
 합하여 사는 존재이다.

2) 존재론적 인격주의의 한계: 일리아 델리오의 관점

『옛것과 새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존엄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문헌이지만, 내부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프란치스
 코회 수녀이자 신학자인 일리아 델리오의 논문 “Too Little, Too

Late: The Church's Inadequate Response to AI and Human Evolution”에서 이러한 접근이 여전히 정적 존재론(static ontology)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델리오의 비판은 다섯 가지 차원에서 전개된다.

첫째, 존재론적 한계이다. 델리오는 『옛것과 새것』이 하느님을 완성된 창조 질서의 보존자로, 인간을 그 질서의 관리자로, 기술을 외적 도구로 이해하는 정적 존재론적 구도를 반영한다고 비판한다. 그녀에 따르면 하느님은 “과정 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신”이며, 기술은 “창조의 내재적 진화의 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주적 진화 과정 속에서 물질과 의식이 만나는 지점”이며, 인간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기술과 더불어 진화하는 창조의 공동 참여자(co-creator)라는 것이다. 둘째, 인간학적 한계이다. 델리오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정체성이 점차 “관계적”이고 “분산된” 양상으로 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녀는 이러한 새로운 인간상을 “공진화적 인간(co-evolutionary human)”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혼과 육체의 단일체”라는 형이상학적 정의는 이러한 하이브리드적 실존을 포착하기에는 부족하다. 셋째, 윤리적 한계이다. 델리오는 『옛것과 새것』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간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방어적 윤리 태도를 반영한다고 비판한다. 그녀는 인공지능을

* Ilia Delio, “Too Little, Too Late: The Church's Inadequate Response to AI and Human Evolution”, *National Catholic Reporter*, August 12, 2025; 예여공 옮김, “너무 늦고 부족하다 — 인공지능과 인간 진화에 대한 교회의 대응”,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25.10.13. 델리오는 테이아르 드 샤르댕(Teilhard de Chardin)의 진화신학을 계승하는 조직신학자로, 교회가 인간을 고정된 본질로 이해하는 한 인간-기술의 공진화(co-evolution)라는 역동적 현실을 충분히 포착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통제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함께 식별해야 할 파트너”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넷째, 이분법적 한계이다. 텔리오는 “인간 대 기계”라는 이분법을 “범주적 근본주의”라고 부르며 비판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적 범주는 가능한 모든 형태의 지능과 의식을 온전히 포착할 수 없으며, 인간-기술-신성이 얹혀 있는 복합적 실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다섯째, 시대적 지연이다. 텔리오는 “너무 늦고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미 2022년에 등장했지만, 교황청 문헌은 2025년에 발표되었다. “인간이 포스트휴먼 미래로 나아가는 동안 교회는 여전히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머물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텔리오의 비판은 존재론적 인격주의에 대한 근본적 도전을 의미한다. 그녀는 인간을 고정된 실체로 이해하기보다, 하느님-인간-기술이 상호 작용하며 함께 진화하는 동적 관계성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은 단순히 “하느님의 모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의 공동 참여자로서 새로운 윤리적 책임을 지닌 존재로 자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1987년 바티칸 천문대가 주관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재조명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과학과 신앙이 진리를 향한 공통의 열망 속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학은 과학과 기술의 언어와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며, ‘과학의 시간’과 ‘신앙

* 로버트 존 러셀 · 윌리엄 스테거 · 조지 코인 엮음, 『과학과 종교, 두 세계의 대화』, 박준양 · 전양환 옮김(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3), 23~25쪽.

의 시간'이 조화롭게 만나는 사유의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4. 세 사상의 공통점과 통합적 접근

앞 장에서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존재론적 인격주의의 인간 이해와 인간상, 그리고 각 사상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 사상의 공통점과 통합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는 단순한 학술적 비교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윤리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실존적·윤리적 물음에 대한 응답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1) 세 사상의 공통점

세 사상은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 인간 존엄에 대한 관심이다. 세 사상 모두 “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라는 근본 문제에 응답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기술적 향상을 통해, 포스트휴머니즘은 관계적 공존을 통해, 존재론적 인격주의는 존재론적 토대를 통해 인간 존엄을 실현하려 한다. 둘째, 자율성의 중요성이다. 세 사상 모두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를 중

심에 둔다.* 트랜스휴머니즘은 형태학적 자유를, 포스트휴머니즘은 관계적 자율성을, 존재론적 인격주의는 책임적 자유를 강조한다. 셋째, 기술 시대에 대한 적극적 응답이다. 세 사상 모두 기술 발전이 인간 존재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철학적·윤리적 응답을 제공한다.** 넷째, 전통적 인간 이해의 재검토이다. 세 사상 모두 전통적 인간 이해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새로운 인간학적 틀을 제시한다. 다섯째, 미래 지향성이다. 세 사상 모두 “미래의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질문에 답하려 한다.

이러한 공통점들은 세 사상이 서로 완전히 대립적이지 않으며, 동일한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응답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공통점을 토대로 세 사상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 통합의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본 연구는 두 가지 통합의 축을 제안한다. 첫째는 자율성(autonomy) 개념을 통한 윤리적 통합이며, 둘째는 엘리오 스그레차의 삼각형 방법론을 통한 구조적 통합이다.

2) 세 사상의 통합 기준과 방법론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사상은 자율성을 각기 다르게 이해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자율성을 자기 신체에 대한 선택권으로 파악하며, 인간이 자신의 생물학적 한계에 대해 기술을 통

* 신상규,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 향상의 생명정치학”, 84~94쪽.

** 클라우스 슈밥 외, 『4차 산업혁명의 충격』, 25~47쪽.

해 수정하거나 초월할 자유를 지닌다고 본다.* 이러한 이해를 대표하는 개념이 형태학적 자유로 이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형태를 스스로 설계할 권리를 의미한다. 반면 포스트휴머니즘은 자율성을 관계적 자율성으로 재정의한다. 브라이도티가 제시한 유목적 주체는 고정된 본질을 갖지 않으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협상되고 재구성된다. 이 관점에서 자율성은 독립성이 아니라 상호의존성 안에서 실현된다.** 존재론적 인격주의는 자율성을 책임적 자유로 이해하며, 자유는 진리와 선을 향한 도덕적 결단 속에서 완성된다고 본다. “자유는 선택의 폭이 아니라 책임의 깊이에서 측정된다”(『옛것과 새것』, 94항). 이 관점에서 자율성은 인간 존엄의 표현이자 윤리적 책임의 근거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세 사상 통합의 기준으로 제안한다. 자율성은 세 사상이 공통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핵심 범주이면서도 동시에 각 사상의 차이를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개념이다. 더 나아가 자율성은 유전자 편집,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인간 향상 기술과 같은 실제 윤리 쟁점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직접 연결되는 실천적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율성은 개인적 자기결정, 관계적 상호의존, 윤리적 책임을 포괄하는 다층적 개념으로서, 세 사상의 인간 이해를 배타적 대립이 아닌 보완적 긴장 관계 속에서 재구성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자율성은 현대 윤리학에서 인간 존엄의 기초로 기능해 왔으며, 생명윤리의 핵심 원리로서 주

* 신상규,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 향상의 생명정치학”, 84~94쪽.

** Rosi Braidotti, *The Posthuman*, pp.1~54.

류 담론과의 대화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이해가 곧바로 자율성 개념의 이론적 통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자율성은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형태학적 자유, 관계적 자율성, 책임적 자유라는 서로 구별되는 차원을 포괄하는 다층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은 자율성을 확장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동시에 이들 자유가 언제나 조화롭게 결합된다고 전제할 경우, 이론적 긴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위험 또한 내포한다. 문제는 이러한 자율성의 다층성이 이론적으로는 포괄성을 제공하지만, 실제 기술 적용의 맥락에서는 윤리적 판단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실제로 형태학적 자유, 즉 신체·인지·유전적 자기 변형에 대한 개인의 선택 자유는 관계적 자율성 — 타자와의 상호의존성, 사회적 책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 — 와 충돌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의 유전적 개입 선택이 가족, 사회, 혹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에게 비가역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선택을 단순히 개인의 자율성 행사로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긴장은 트랜스휴머니즘 내부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자율성 개념의 무제한적 확장은 오히려 책임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져 왔다.*

* 생식 세포 유전자 편집, 인간 향상 기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에서 개인의 형태학적 자유가 타자와 미래 세대의 자율성을 선점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전방욱, 『크리스퍼 베이비: 유전자 변형 인간의 탄생』, 이상복스, 2019; 마이클 샌델의 같은 책, 102쪽. “자유주의적 우생학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나 유전학적 개입 모두 아의의 자율권, 즉 열린 미래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자율성을 다층적 개념으로 이해할 경우, 핵심 과제는 서로 다른 자율성 차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어떻게 판별하고 조정할 것인가에 있다. 형태학적 자유, 관계적 자율성, 책임적 자유는 각각 중요한 윤리적 가치를 담고 있지만, 실제 기술 적용의 맥락에서는 이들 가치가 동시에 최대화되기보다는 상호 충돌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자율성의 통합은 이들 차원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종합하는 데서 달성될 수 없으며, 구체적 상황 속에서 판단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는 구조적 방법론을 요구한다. 『옛것과 새것』 역시 기술 시스템의 설계와 사용 목적은 인간의 책임에 달려 있으며(39항), 기술의 도덕적 평가는 그 지향과 사용 수단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40-41항),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정의 최종 책임은 언제나 인간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한다(44항).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엘리오 스그레차(Elio Sgreccia)가 제안한 삼각형 방법론(Triangular Method)을 자율성 통합의 분석 틀로 도입한다. 스그레차의 방법론은 인간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존재(being), 행위(action), 관계(relationship)의 상호 연관 속에서 파악함

* 생식세포 유전자 편집은 질병 예방이나 인간 향상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 또는 부모의 형태학적 자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아직 동의할 수 없는 존재의 유전적 조건을 영구적으로 변경하며, 그 영향이 가족과 사회, 미래 세대 전체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관계적 자율성과 책임적 자유와 충돌한다. 이 경우 개인의 자기결정은 타자의 자율성을 선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신경 강화 기술은 자기 신체에 대한 통제라는 형태학적 자유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경우, 강화된 인간과 비강화 인간 사이의 불평등과 차별을 야기하며, 사실상의 선택 강요라는 사회적 압박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관계적 맥락에서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선호에 따른 유전자 선택은 생식의 자유와 형태학적 자유의 연장선에서 논의되지만, 자녀를 기대된 성능이나 목적에 따라 설계된 존재로 대상화할 위험을 내포한다. 이 경우 인간의 존엄은 존재 자체가 아니라 성취 가능성에 근거하게 되며, 책임적 자유가 요구하는 인간 존엄의 비조건적 보호 원칙과 충돌한다.

으로써, 단일 원리나 결과 중심 접근이 놓치기 쉬운 윤리적 복잡성을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은 이 방법론을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이해에 적용하여, 자율성의 세 차원 — 형태학적 자유, 관계적 자율성, 책임적 자유 — 을 각각 독립된 가치로 병렬화하기보다, 상호 긴장 속에서 판별되어야 할 윤리적 요소들로 재배치하고자 한다. 이러한 삼각형 방법론의 도입은 자율성을 확장할 것인가 제한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질문을 넘어, 어떠한 조건과 구조 안에서 자율성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논의를 전환시킨다. 다시 말해, 기술적 가능성은 자율성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며, 관계적 영향과 책임의 귀속이 함께 고려될 때 비로소 자율성은 인간 존엄의 표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삼각형 방법론은 자율성 개념의 긴장을 해소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긴장을 윤리적 판단의 생산적 동력으로 전환하는 분석 틀로 이해될 수 있다.

3) 엘리오 스그레차 삼각형 방법론

엘리오 스그레차는 생명윤리 판단의 틀로 삼각형 방법론(Triangular Method)을 제시했다. 이 방법은 과학적 사실, 인간학적 원리, 윤리적 규범의 통합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론이다.* 첫째, 과학적 사실의 차원은 기술의 작동 방식과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한다.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는 기술의 가능

* 엘리오 스그레차, 『생명윤리의 이해 1』, 132~137쪽; 마리아 루이사 디 피에트리, 『생명윤리 교육 그리고 가정』, 정재우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1, 60쪽.

성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단계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윤리적 판단이 공허한 규범주의로 전락하거나, 기술 공포증)에 빠질 위험이 있다. 둘째, 인간학적 원리의 차원은 인간 존엄의 근거를 제시하며,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한다. 이는 기술적 가능성을 인간의 본질과 존엄이라는 틀 안에서 평가하는 단계이다. 인간학적 원리 없이는 기술이 인간을 수단화하거나 도구화할 위험이 있다. 셋째, 윤리적 규범의 차원은 과학적 사실과 인간학적 원리를 구체적 실천으로 연결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이는 인식과 원리를 도덕적 행위로 전환하는 단계로 법적 제도·사회적 합의·시민 교육·국제 협약 등 구체적 형태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 세 차원은 상호의존적이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생명윤리적 판단은 왜곡되거나 불완전해진다. 스크레차는 이 세 차원이 순환적 관계에 있다고 강조한다. 과학적 사실은 인간학적 성찰을 촉발하고, 인간학적 원리는 윤리적 규범의 토대를 제공하며, 윤리적 규범은 다시 과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일방적 연역이나 귀납이 아니라, 통합적 대화의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삼각형 방법론은 자율성 개념의 통합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한다. 자율성의 세 차원 — 개인적 자율성(트랜스휴머니즘), 관계적 자율성(포스트휴머니즘), 윤리적 자율성(존재론적 인격주의) — 은 삼각형 방법론의 세 차원과 조응하며, 통합적 인간학의 체계적 틀을 제공한다.

* 엘리오 스크레차, 『생명윤리의 이해 2』, 정재우 옮김(서울: 가톨릭출판사, 2016), 973쪽.

4) 통합적 접근을 위한 구체적 사례 적용

다음은 이러한 통합의 틀을 CRISPR-Cas9 유전자 편집 기술에 적용함으로써, 세 사상이 인간 존재의 본질과 가치를 각각 어떻게 해석되며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CRISPR-Cas9는 2012년 제니퍼 다우드나와 에마누엘 샤르팡티에가 개발한 유전자 편집 기술로, “유전자 가위”로 불리며 기존 기술(ZFN, TALEN)에 비해 정확도가 높고 비용이 저렴하다.* 이 기술이 인간 배아 편집에 적용된 현실은 2018년 허젠쿠이 사건을 통해 극적으로 드러났다.**

2018년 11월, 중국 남방과학기술대학교의 허젠쿠이 교수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아기 쌍둥이 ‘루루’와 ‘나나’를 탄생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는 아버지가 HIV 보균자인 부부의 배아에서 CCR5 유전자를 제거하여 HIV 면역을 갖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국제 과학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허젠쿠이는 2019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스그레차의 삼각형 방법론을 이 사례에 적용하면, 세 사상이 제시하는 인간 이해의 각 차원이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먼저 과학적 차원(트랜스휴머니즘)에서 CRISPR 기술은 유전자 편집을 현실화하며, 인간이 생물학적 조건을 능동적으로 변화

* 전방욱, 『DNA 크리스피 유전자가위』, 이상북스, 2017, 29~34쪽; Jennifer A. Doudna and Emmanuelle Charpentier, “The New Frontier of Genome Engineering with CRISPR-Cas9”, Science 346-6213 (2014): 1258096.

** 전방욱, “세계 최초의 유전자 편집 아기 출생의 의미”, 『인격주의 생명윤리』 제9권 제1호, 99~113쪽.

*** “유전자 편집 아기 탄생시킨 中 과학자, 징역 3년 선고”, 『연합뉴스』, 2019.12.30.

시킬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과 기술의 공진화를 긍정하며 인간 향상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허젠쿠이 사건은 이러한 기술적 가능성이 더 이상 이론적 논의에 머물지 않음을 분명히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가능성이 곧 윤리적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인간학적 차원(포스트휴머니즘)에서 인간은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기술·자연·타자와의 관계망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로 이해된다. 유전자 편집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미래 세대, 사회적 평등, 인간 유전자 풀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계적 책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 관점은 허젠쿠이 사건에서 태어날 아이들이 놓이게 될 사회적·상호주관적 맥락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차원(존재론적 인격주의)에서 인간은 유전적 특성 이전에 인격적 존엄을 지닌 존재로 이해된다. 인간의 존엄은 설계 가능한 속성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근거하며, 유전자 편집은 미래 세대의 자율성을 선점하고 인간을 “선물(gift)”에서 “프로젝트(project)”로 전환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인간은 개선될 수는 있지만 설계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젠쿠이 사건은 단일한 이론 틀만으로 인간과 기술의 문제를 판단할 때 발생하는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스그레차의 삼각형 방법론에 따라 조명하면, 해당 사건은 과학적 차원, 인간학적 차원, 윤리적 차원 모두에서 중대한 위반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 마이클 샌델, 『같은 책』, 65, 109~127쪽.

과학적 차원에서 허젠쿠이는 CRISPR 기술의 안전성과 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과정과 결과를 과학 공동체와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았다. 이는 과학적 엄밀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둘째, 인간학적 차원에서 그는 루루와 나나가 관계망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고려를 결여하였다. 유전자 편집된 아이라는 사실이 이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낙인과 차별의 가능성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성찰되지 않았다. 셋째, 윤리적 차원에서 허젠쿠이는 동의할 수 없는 존재에게 비가역적인 유전적 변형을 가함으로써 아이들을 사실상 실험 대상으로 취급하였으며, 이는 인간 존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적 접근에서 허젠쿠이 유전자 편집 사건은 특정 이론의 실패라기보다는 과학적 사실·인간학적 관계·윤리적 규범이 분리된 채 작동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윤리 붕괴의 사례로 이해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기술적 가능성과 인간 향상의 잠재력을 조명하지만, 과학적 엄밀성과 투명성이 결여될 경우 윤리적 정당화로 전환될 수 없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재정의함으로써 사회적 영향과 미래 세대의 문제를 드러내지만, 단독 적용 시 책임의 귀속과 규범적 기준 설정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존재론적 인격주의는 인간 존엄과 생명의 불가침성을 강력히 옹호하지만, 기술 현실에 대한 조건부 판단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단순한 금지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스그레차의 삼각형 방법론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판단 구조를 제공한다. 이 접근은 형태학적 자유

를 원천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행사가 관계적 자율성과 책임적 자유에 의해 규범적으로 판별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허젠쿠이 사건은 연구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과학 공동체의 검증 책임, 제도적 규제의 공백, 미래 세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동시에 실패한 사례로 재구성된다.

따라서 통합적 접근에서 허젠쿠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비 윤리적 사건이 아니라, 향후 유전자 편집과 AI 기반 생명기술 정책에서 요구되는 책임의 다층성, 규제의 선제성, 인간 존엄의 실질적 적용 기준을 제시하는 부정적 규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허젠쿠이가 국제 규범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았던 사실과 WHO가 생식세포 유전자 편집의 임상 사용을 “무책임하다”고 공식 선언한 것*, 그리고 한국에서 2005년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인간 배아 연구, 체 세포 복제, 유전자 치료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 체계가 마련된 점은** 스그레차의 삼각형 방법론이 실제 법·제도 차원에서 구현된 사례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통합적 인간 이해가 이론적 조화의 선언이 아니라, 실제 윤리적 의사결정의 현장에서 판단과 책임을 구조화할 수 있는 실천적 틀이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 World Health Organization, “Statement on governance and oversight of human genome editing”, July 26, 2019, <https://www.who.int/news/item/26-07-2019-statement-on-governance-and-oversight-of-human-genome-editing>(검색일: 2025.10.16).

** 구영모, 「황우석·문신용 교수의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사례 분석」, 『한국생명윤리학회』, 2004, 59~70쪽;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0호, 2022년 6월 10일 일부개정;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21.

III. 결론

■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이해를 둘러싼 세 가지 사상 —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존재론적 인격주의 — 를 비교 분석하고, 스그레차의 삼각형 방법론을 통해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였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 향상과 생물학적 초월을 지향하지만 인간을 기술적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으며,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관계적 존재론을 제시하면서도 윤리적 주체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존재론적 인격주의는 인간 존엄의 확고한 토대를 제공하지만, 정적 존재론에 머물러 기술적 진화의 역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들 사상은 표면적으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가?”라는 동일한 물음에 대한 상이한 응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응답하기 위해 스그레차의 삼각형 방법론 — 과학적 사실, 인간학적 원리, 윤리적 규범의 통합 — 은 이러한 모색을 위한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통합적 인간 이해의 네 가지 원리를 도출하였다, 첫째, 과학적 사실의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의 관점에서 기술은 인간 향상의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현실이다.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은 인간 존

제의 조건을 재정의하고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이 강조하듯, 기술적 현실을 직시하고 인간과 기술의 얽힘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과학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기술에 대한 신화와 공포를 모두 경계하게 하며, 윤리적 판단을 현실적 기반 위에 책임있게 정립하도록 이끈다.** 둘째, 인간학적 원리가 판단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존재론적 인격주의는 인간 존엄의 불가침성과 관계적 인격성을 확인함으로써, 기술적 가능성이 인간을 도구화하거나 수단화하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의 관계론적 통찰은 이러한 존엄의 이해를 확장하여, 인간을 타자 및 기술과의 관계망 속에서 윤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윤리적 규범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스 요나스의 경고처럼 “수단과 목적의 전도는 가장 숭고한 목적도 파멸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과 윤리의 결합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유전자 편집이나 인공지능의 활용은 생명을 보존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목적에서는 허용될 수 있으나, 인간의 형질을 선택하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윤리적 규범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법적 제도·사회적 합의·시민 교육·국제 협약 등 구체적 형태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2021년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 2020년

* 엘리오 스그레차, 『생명윤리의 이해 2』, 정재우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6, 973쪽.

** 한스 요나스, 『기술 의학 윤리』, 이윤택 옮김, 서울, 2005, 93쪽.

*** 마리아 루이사 디 피에트르, 『생명윤리 교육 그리고 가정』, 정재우 옮김(서울: 가톨릭출판사, 2011, 65-90쪽.

**** 한스 요나스, 『기술 의학 윤리』, 이윤택 옮김, 서울, 2005, 42쪽. 368쪽.

***** 엘리오 스그레차, 『생명윤리의 이해 2』, 정재우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6, 973쪽.

***** 국제적으로는 2021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바티칸의 「로마 콜」*, 한국의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윤리 원칙이 제도적 실천으로 구체화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넷째, 모든 판단의 최종 기준은 “이 기술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가?”라는 물음이어야 한다. 인간화란 기술이 인간이 더 깊이 성찰하고, 더 풍요롭게 관계 맺으며, 더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기술이 인간을 데이터와 기능으로 환원하거나 관계를 단절시키며,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비인간화이며 윤리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자율성(autonomy)을 세 사상 통합의 핵심 매개 개념으로 재정립하였다. 트랜스휴머니즘에서 자율성은 기술을 통한 자기결정의 확장으로, 포스트휴머니즘에서는 상호의존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으로, 존재론적 인격주의에서는 진리와 선을 향한 도덕적 결단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이 세 차원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통합적 자율성의 인간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때 자율성은 단일 차원의 자유가 아니라, 형태학적 자유가 관계적·책임적 자유에 의해 지속적으로 규범적 판별을 받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가 그 대표적 사례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인간 존엄, 프라이버시, 공정성, 지속가능성의 원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n 23 November 2021.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0455> [검색일: 2025.10.20.]

* Pontifical Academy for Life, *Rome Call for AI Ethics* (Vatican City: The Vatican, <https://www.vaticannews.va/en/vatican-city/news/2020-05/artificial-intelligence-with-ethics-pontifical-academy-for-life.html>). [검색일: 2025.10.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발표”, 『법률신문』, 2020.12.11.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66492>. [검색일: 2025.10.20]

*** 바티칸 문화평의회,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편, 『4차 산업혁명과 인류의 미래』,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9, 37~39쪽.

는 긴장적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자율성을 무제한적 자기결정으로 환원하는 경향과 기술 발전에 대한 전면적 거부라는 양극단을 동시에 비판한다.*

이러한 자율성의 재정의는 단지 규범 개념을 정교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인간학적 질문으로 직접 이어진다. 본 논문은 인간을 무제한적으로 자신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적 주체로도, 관계적 맥락에 의해 전적으로 규정되는 존재로도 환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기술적 가능성을 지니되, 그 행사가 관계와 책임의 지평 안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인격적 주체로 이해한다. 자율성 간의 긴장과 충돌을 윤리적 판단의 출발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인간을 고정된 본질이나 단일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판단하고 응답하며 책임지는 존재로 이해하는 인간관에 기초한다. 이 점에서 엘리오 스그레차의 삼각형 방법론은 자율성의 조화를 전제하는 도식이 아니라, 인간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책임을 감수하며 선택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인간 이해의 구조적 틀로 기능한다.

바로 이러한 인간 이해의 관점에서 볼 때, 허젠쿠이 유전자 편집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단일 이론의 실패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인간학적 관계·윤리적 규범이 분리된 채 작동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윤리 붕괴의 사례로 이해된다.

본 논문의 의의는 허젠쿠이 유전자 편집 사건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 향상의 기술

* 『옛것과 새것』, 55항. “자율성과 책임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적 가능성을 조명하지만, 과학적 엄밀성과 투명성이 결여될 경우 윤리적 정당화로 전환될 수 없으며,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함으로써 사회적 영향과 미래 세대의 문제를 드러내지만 책임 귀속과 규범 기준 설정에서는 한계를 노출한다. 반대로 존재론적 인격주의는 인간 존엄과 생명의 불가침성을 강력히 옹호하지만, 기술 현실에 대한 조건부 판단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단순한 금지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스그레차의 삼각형 방법론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 형태학적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행사가 관계적 자율성과 책임적 자유에 의해 규범적으로 판별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허젠쿠이 사건은 연구자 개인의 선택을 넘어 과학 공동체의 검증 책임, 제도적 규제의 공백, 미래 세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동시에 실패한 사례로 이해되며, 이는 향후 유전자 편집과 AI 기반 생명기술 정책에서 요구되는 책임의 다층성, 규제의 선제성, 인간 존엄의 실질적 적용 기준을 제시하는 부정적 규범 사례로 기능한다.

이러한 분석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이해가 더 이상 기술적 능력이나 선택의 자유만으로 정의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인간은 기술을 통해 자신을 변형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관계 속에서 의미를 형성하고 책임을 짊어지는 윤리적 주체이다. 따라서 인간 이해는 과학적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인간학적 관계성에 대한 성찰, 인간 존엄에 대한 규범적 기준이 통합될 때 비로소 온전히 성립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통합적 인간 이해는 인간을 기술의 객체가 아니라, 기술을 성찰하고 규율하며 공동선의 방향으로 이끌 책임 있는 주체로 재위치시키는 데 그 철학적

의의를 지닌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가톨릭 신학의 최신 문헌(『옛것과 새것』)과 일리아 텔리오의 비판적 신학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가톨릭 신학이 기술 시대의 인간 이해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유의 자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이해를 둘러싼 철학·윤리·신학 간의 대화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이상의 논의를 고찰한 바를 종합하면, 본 논문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이론적 논의에 상대적으로 치중하여 구체적인 영역별 분석이 충분하지 못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노동, 법, 의료, 교육, 문화 등 구체적인 영역에서 인간의 자율성, 관계성, 책임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구 중심적 관점의 한계가 있다. 유교의 관계적 자아론, 불교의 연기론, 한국 전통 사상의 정(情) 개념 등 동아시아적 인간 이해를 포괄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인간학적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세 사상 간 근본적 철학적 차이는 여전히 남는다. “치료와 향상의 구분”과 같은 경계선은 실제로는 매우 모호하며,**** 급속한 기술 발전의 속도를 철학적 성찰이 따라가기 어렵다.

* 『옛것과 새것』, 49항.

** 홍혜정, 「의료산업의 인공지능 활용 동향과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 (2021), 967~968쪽; 양천수, 「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형사사법을 예로 하여」, 『법철학연구』 20-2 (2017), 45~76쪽;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단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 『한국과학기술학회』 (2019), 215~225쪽.

*** 이종원 엮음,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학』; 정재현,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진화 모델로서의 다산 철학”, 301~325쪽.

**** 마이클 샌델의 책, 27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질문은 “기계가 무엇을 대신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인간은 단지 정보를 처리하는 존재를 넘어, 의미를 창조하고 관계를 맺으며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인지를 더욱 깊이 성찰하도록 이끄는 거울이 될 수 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자신에게 던져야 할 물음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탐구와 응답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의 통합적 인간학이 지향해야 할 여정이다.** 그 여정 속에서 기술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자 동반자이며, 인간은 여전히 의미를 사유하고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존재로 남을 것이다.

* 교황청 AI연구 그룹, 『인공지능과 만남』, 18~19쪽.

** 신승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휴머니즘」, 2017년도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새천년복음화연구소 제 47차 학술회의 자료집, 2017.11.11, 서울정동프란치스코회관, 66~68쪽.

참고문헌

- ◆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 ◆ 교황청 신앙교리부·교황청 문화교육부,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 인공지능과 인간 지성의 관계에 관한 공지』, Vatican City: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25.
- ◆ 강두호, 『자연법 사회윤리』, 인간사랑, 2009.
- ◆ 객진상·박찬호·한민택 편, 『4차 산업혁명과 신학의 만남』,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9.
- ◆ 교황청 AI연구 그룹, 『인공지능과 만남』, 이성호 외 9인 옮김,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5.
-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해설집』,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021.
- ◆ 닉 보스트롬, 『슈퍼인텔리전스: 경로, 위험, 전략』, 조성진 옮김, 까치, 2020.
- ◆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김명남·장시형 옮김, 김영사, 2007.
- ◆ 로버트 존 러셀·윌리엄 스테거·조지 코인 엮음, 『과학과 종교, 두 세계의 대화』, 박준양·전양환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3.
- ◆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인공지능의 시대, 인생의 의미』, 박종대 옮김, 열린책들, 2022.
- ◆ 마리아 루이사 디 피에트로, 『생명윤리 교육 그리고 가정』, 정재우 옮김, 가

тол릭출판사, 2011.

- ◆ 마이클 샌델, 『완벽에 대한 반론: 유전공학 시대의 인간의 한계』, 안규남 옮김, 와이즈베리, 2014.
- ◆ 박태웅, 『AI 강의 2025』, 한빛비즈, 2025.
- ◆ 바티칸 문화평의회·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편, 『4차 산업혁명과 인류의 미래』,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9.
- ◆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살림, 2005.
- ◆ 야나니 로,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조창오 옮김,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 엘리오 스그레차, 『생명윤리의 이해 I』, 정재우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6.
- ◆ _____, 『생명윤리의 이해 II』, 정재우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6.
- ◆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 김명주 옮김, 김영사, 2017.
- ◆ 이종관, 『포스트휴먼이 온다: 인간 이후의 인간학』, 사월의 책, 2017.
- ◆ 이정모 외, 『미라클 퀘스천: 11인의 전문가, 우리의 미래를 구할 질문에 답하다』, 공민희 옮김, 이야기장수, 2025.
- ◆ 이중원 엮음,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학』, 한울, 2021.
- ◆ 장-프랑수아 리오타르, 『포스트모던의 조건: 지식에 관한 보고서』, 유정완·이성민 옮김, 민음사, 1992.
- ◆ 전방욱, 『DNA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이상복스, 2017.
- ◆ _____, 『크리스퍼 베이비』, 이상복스, 2019.
- ◆ 진교훈 외, 『인격: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격의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 한스 요나스, 『기술 의학 윤리』, 이유백 옮김, 숲, 2005.
- ◆ 구영모, 「황우석·문신용 교수의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사례 분석: 생명과학연구윤리의 측면에서」, 『한국생명윤리학회』 (2004), 59~70쪽.
- ◆ 김동윤·배상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발달에 따른 트랜스/포스트휴머니즘에 관한 학제적 연구」, 『방송공학회논문지』 24-3 (2019), 411~419쪽.

- ◆ 김종옥,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단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 『한국과학기술학회』 (2019), 215~225쪽.
- ◆ 신상규,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 향상의 생명정치학」, 『일본비평』 17 (2017), 67~90쪽.
- ◆ 양천수, 「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형사사법을 예로 하여」, 『법철학연구』 20-2 (2017), 45~76쪽.
- ◆ 이상현, 「포스트휴먼과 행복」, 『철학논집』 51 (2017), 127~152쪽.
- ◆ 이채리, 「포스트휴먼의 공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한철학』 71 (2013), 171~195쪽.
- ◆ 이진현, 「우리는 ‘곧’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인간 실존의 문제 고찰」, 『신학과 철학』 42 (2022), 81~112쪽.
- ◆ 이종관,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운명」, 박진상·박찬호·한민택 편, 『4차 산업혁명과 신학의 만남』, 수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9, 159~184쪽.
- ◆ 장희권, 「21세기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인간 존재 방식: 이성적 계몽에서 유전자를 통한 사육으로?」, 『독일문학』 96 (2005), 174~195쪽.
- ◆ 전방욱,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의한 인간 생식세포 유전체 편집의 윤리적 프레이밍」, 『생명, 윤리와 정책』 2-2 (2018), 25~46쪽.
- ◆ 전방욱, 「세계 최초의 유전자 편집 아기 출생의 의미」, 『인격주의 생명윤리』 9-1, 99~113쪽.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포스트휴먼 시대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문사회 학제간 연구』, 『정책연구』 14 (2014).
- ◆ 홍석영, 「현대의 철학적 인간학: 인격주의를 중심으로」, 『가톨릭 신학과 사상』 62 (2008), 85~114쪽.
- ◆ 홍혜경, 「의료산업의 인공지능 활용 동향과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 (2021), 967~968쪽.
- ◆ Beauchamp, Tom L. and James F. Childre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8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 ◆ Braidotti, Rosi, *The Posthuman*, Cambridge: Polity Press, 2013.
- ◆ Fukuyama, Francis, *Our Posthuman Future: Consequences of the Biotechnology Revoluti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2.
- ◆ Habermas, Jürgen, *The Future of Human Nature*, Cambridge: Polity Press, 2003.
- ◆ Huxley, Julian, *New Bottles for New Wine*, London: Chatto & Windus, 1957.
- ◆ Bostrom, Nick, “A History of Transhumanist Thought”, *Journal of Evolution and Technology* 14-1 (2005), pp.1~25.
- ◆ Bostrom, Nick, “Why I Want to Be a Posthuman When I Grow Up”, in Bert Gordijn and Ruth Chadwick eds., *Medical Enhancement and Posthumanity*, Berlin: Springer, 2008, pp.107~136.
- ◆ Doudna, Jennifer A. and Emmanuelle Charpentier, “The New Frontier of Genome Engineering with CRISPR-Cas9”, *Science* 346-6213 (2014), 1258096.
- ◆ Roco, Mihail C. and William S. Bainbridge,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02.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법률 제18920호, 2022년 6월 10일 일부개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발표”, 『법률신문』, 2020. 12.11.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66492> (검색일: 2025.10.20).
- ◆ 신상규,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머니즘, 그리고 삶의 재발명”, HORIZON (KIAS), 2020.1.23. <https://horizon.kias.re.kr/wp-content/uploads/2020/01/2001.pdf> (검색일: 2025.11.13).
- ◆ 예여공 옮김, “너무 늦고 부족하다 — 인공지능과 인간 진화에 대한 교회의 대응”,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25.10.13.
- ◆ Belluck, Pam, “Chinese Scientist Who Genetically Edited Babies Gets 3

Years in Prison”, *The New York Times*, December 30, 2019.

- ◆ Brockman, Greg et al., “ChatGPT: Optimizing Language Models for Dialogue”, OpenAI Blog, November 30, 2022. <https://openai.com/blog/chatgpt> (검색일: 2025.10.15).
- ◆ Delio, Ilia, “Too Little, Too Late: The Church’s Inadequate Response to AI and Human Evolution”, *National Catholic Reporter*, August 12, 2025.
- ◆ Hu, Krystal, “ChatGPT sets record for fastest-growing user base”, *Reuters*, February 2, 2023.
- ◆ Pontifical Academy for Life, *Rome Call for AI Ethics*, Vatican City: The Vatican, 2020. <https://www.vaticannews.va/en/vatican-city/news/2020-05/artificial-intelligence-with-ethics-pontifical-academy-for-life.html> (검색일: 2025.10.20).
- ◆ Regalado, Antonio, “Exclusive: Chinese Scientists Are Creating CRISPR Babies”, *MIT Technology Review*, November 25, 2018.
- ◆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n 23 November 2021.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0380455> (검색일: 2025.10.20).
- ◆ Vance, Ashlee, “Neuralink’s First Human Patient Able to Control Mouse Through Thinking”, *Bloomberg*, March 20, 2024.
- ◆ World Health Organization, “Statement on governance and oversight of human genome editing”, July 26, 2019. <https://www.who.int/news/item/26-07-2019-statement-on-governance-and-oversight-of-human-genome-editing> (검색일: 2025.10.16).
- ◆ “AI 챗봇과 대화하다 자살한 벨기에 남성”, 『한겨레』, 2023.3.31.
- ◆ “AI 챗봇과 대화 후 자살한 미국 10대”, 『연합뉴스』, 2024.10.24.
- ◆ “머스크 뉴럴링크, 첫 인간 뇌 칩 이식 성공”, 『한겨레』, 2024.1.30.
- ◆ “유전자 편집 아기 탄생시킨 中 과학자, 징역 3년 선고”, 『연합뉴스』, 2019.12.30.



■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이해를 둘러싼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존재론적 인격주의를 비교 분석하고 통합적 접근을 모색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기술을 통한 인간 향상과 생물학적 초월을 추구하나 인간을 기능으로 환원하는 한계를 지닌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를 해체하고 관계적 존재론을 제시하나 윤리적 주체성의 근거가 불명확하다. 존재론적 인격주의는 2025년 교황청 문헌 『옛것과 새것』을 중심으로 인간 존엄의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나, 일리아 델리오가 비판하듯 정적 존재론에 머물러 기술적 진화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세 사상이 공유하는 인간 존엄에 대한 관심과 자율성의 중요성을 확인한 후, 자율성 개념을 통합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엘리오 스그레차의 삼각형 방법론 — 과학적 사실, 인간학적 원리, 윤리적 규범 — 을 통합의 구조틀로 채택하여, 2018년 허젠쿠이 유전자 편집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인공지능 시대의 온전한 인간 이해는 과학적 인식, 인간학적 성찰, 윤리적 실천이 조화롭게 통합될 때 비로소 가능함을 밝혔다.

주제어: 인공지능, 트랜스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존재론적 인격주의, 자율성, 삼각형 방법론, 인간 존엄



Human Understanding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 Comparative Study of Transhumanism, Posthumanism, and Ontological Personalism

Ha, Young Sook

(Bioethics · Researcher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in The Catholic Univ. of Korea)

Koo, Young Mo

(Bioethics · Emeritus Professor, Asan Medical Center)

■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transhumanism, posthumanism, and ontological personalism regarding human understanding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explores an integrative approach. Transhumanism pursues human enhancement and biological transcendence through technology but is limited by its reduction of humans to mere functions. Posthumanism deconstructs anthropocentrism

